



광주 '혁신과 통합' 출범식이 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야권대통합·지역정치 혁신 나설 것”

‘광주 혁신과 통합’ 출범... 상임대표 최철·채숙희·김재학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야권 대통합 추진모임인 ‘광주 혁신과 통합’이 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향후 지역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 혁신과 통합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야권 대통합,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과 통합’의 남윤인순·문성근 상임대표와 ‘광주 혁신과 통합’ 발기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혁신과 통합 최철 상임대표는 이날 대회사에서 “광주 혁신과 통합”은 야권 대통합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활동과 진보 개혁적 가치 실현, 2012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 지역정치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시민

정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정치 세력은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이어 “광주 혁신과 통합”은 앞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새로운 인물들을 적극 육성하는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과 통합’ 문성근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승리이자 민심을 역행하는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대통합이 절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부터 정치의 혁신과 정당 변화가 이루어지고 야권 대통합의 토대를 마련해

내년 민주진보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혁신적 통합 정당 건설에 기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 혁신과 통합’은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상임대표에 최철·채숙희·김재학씨를, 공동대표에 송재형·나기백·법선·이호석·이해명·황정아씨를 선임했다.

진보개혁 세력은 “광주 혁신과 통합”이 발족함에 따라 민주당 텃밭이었던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의 재편과 경쟁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야권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야권 대통합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며, 야권 대통합 여부에 따른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적자’ 빚고올노인타운 지원비 삭감 광주시-도시공사 협상 돌입

빛고을골프장(대중비 9홀)과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광주도시공사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어 적자 운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지원비 삭감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1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5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골프장은 매출 32억원

에 인건비(8억원), 관리비(8억5000만원) 등 26억7000만원을 지출, 5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협약에 따라 골프장 매출액 중 12억원(1~3월분 제외)을 건강타운에 지원해 6억7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도시공사는 올해는 골프장 수익금 중 2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건강타운

지원비 삭감을 위해 시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애초 광주시와 협약 내용이 도시공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비가 재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이익잉여금 처리기준에 따르면 도시공사 전년도 전체 당기순이익의 60% (6억7000만원) 미만에 한해 지원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건강타운에 대한 지원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한미FTA ‘국회 전원위’ 추진

직권상정 가능성도... 민주 비준안 처리 반대 여전

외통위 파행 책임공방

한나라당이 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날 여야는 물리적 충돌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당은 비준안 처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하면서 또 다시 전문이 잠지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명박 대

통령이 오는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의 반대가 여전하자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 소집 추진 방침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회의 직후 전원위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통위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인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원위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법률

이나 동의안과 달리 한미FTA처럼 비준안은 의결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순수한 찬반토론에 그치게 된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 토론회를 한 뒤 곧바로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내일(2일) 외교통상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점까지 비준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열린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전날 외통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어제 외통위 상항에 대해 면책이 없다. 위원장과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법률

준 의원은 “무슨 공동책임이나. 말조심하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유선호 의원은 “할 말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면서 “나한테 지금 반말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 한이 없다”면서 “다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라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진권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을 감안하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31일 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본청 4층 외통위원실에서 철야 농성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0억명째 아기’ 탄생 축하 잇따라 인구증가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세계 인구 70억명 시대를 맞아 각국이 ‘70억명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식량부족과 환경과 파괴 등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3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2.5kg의 여자아기인 다니카마이 카마초가 출생한 직후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필리핀인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유엔이 31일 70억명째 인류의 탄생을 예상한 가운데 다니카마이는 30일 오후 11시58분 세상의 빛을 봤고, 필리핀 정부는 다니카마이를 세계 인구 70억명 기록의 주인공으로 선포했다.

유엔은 다니카마의 부모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며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고, 필리핀 각지에서도 아기의 장하금과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이 줄을 이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31일 0시분 수도 다카에서 태어난 오이쉬

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70억명째 아기’로 선포했다.

베트남과 잠비아는 세계 인구 70억명 돌파를 축하할 콘서트를 계획 중이고, 러시아와 파푸아뉴기니 등은 산모와 아기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가난과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70억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관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불과 12년 전인 지난 1999년 ‘60억명째 아기’로 지구촌 유명인사가 됐던 보스니아 태생의 남자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실상도 이런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70억명째 아기는 “모순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며 “식량이 풍부하더라도 여전히 10억명은 매일 밤 굶주린 채 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국가 상대 손배소 추진

“국민보호의무 위반”

일본 정부와 9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 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9명을 원고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나섰다.

할머니들이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지루한 소송을 하는 동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취지에서다.

시민모임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가 기각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 대한 번역·분석을 마쳤으며 할머니들의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작업을 거쳐 연내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국가의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위헌으로

본 지난 8월 현재 결정도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됐다.

당시 현재는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현재 결정이 난 뒤에야 일본에 청구권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도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된 만큼 현재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이상갑 변호사는 “양국 간 청구권 협정에 다툼이 생긴 경우 재의와 중재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안락에서 투쟁하는 동안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보다 무거운 위헌행위를 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The 8th Gunsan International Migratory Bird Festival 2011

Great View

2011 군산 세계철새 축제

The 8th Gunsan International Migratory Bird Festival 2011

2011. 11. 16(수)~11. 20(일)

금강철새조망대 지구 | 은파호수공원 지구 | 기타 군산시 일대

철새와 맑은사랑 나누기

2011 군산 세계철새 축제

새안금에서 펼쳐지는 철새와의 동행

매일 해질녘 금강호에서는 수십만마리의 철새가 군무를 펼치는 세계 최대의 Great View가 펼쳐집니다. 평생 꼭 한번 보셔야 할 장관! 놓치지 말고 즐기러 오세요!

PROGRAM

- 습지공원 지구**

80만마리의 철새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 철새 Live View : 대형 LED 전광판으로 Live 영상과 함께 해설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철새의 이야기
 - 각종 체험 프로그램 : 4D 무비카, 특별 과학체험관, 가상현실 체험관 등
 - 버드 아트마켓 : 철새를 소재로한 다양한 그림, 조각, 기념품, 캐리커 등 철새관련 예술작품 전시
 - 군산 특산물과 약거리 체험 : 별거리, 맥물거리 등 유명한 군산 농산물
- 금강철새조망대 지구**

50m 높이에서 즐기는 다양한 철새 프로그램

 - 조망 프로그램 : 50m 높이에서 광활성을 이용한 시원한 철새 장관 관람
 - 가족 공연 : 마당과 마을을 곁한 철새 이야기 공연
 - 3D 애니메이션 체험 : 시뮬레이션에서 날아온 철새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 각종 전시 체험 프로그램 : 연민들기, 솟대만들기, 풍고기 전시, 철새 전시 등
- 은파호수공원 지구**

국내 최대 규모의 은파호수공원에서는 매일 저녁 동족제가 열립니다!

 - 철새 동족제 : 다양한 새를 소재로 한 동이 전시되어 아름다운 장관 연출
 - 유통 띄우기 : 소원을 적어 호수에 띄우면 아름다운 유통을 띄우는 프로그램
 - 철새 음악회 : 호숫가에 어쿠스틱, 포크와 재즈 등 매일 저녁 펼쳐지는 공연
- 조류관찰소&나포심지들 지구**

한번 봐도 보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 기러기가 보이는 실재! 그곳에서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사랑의 추억을 만드세요!

 - 사랑의 심지들 : 아름다운 하트 조형물에서 연인, 가족과 추억 남기기
 - 철새 합조 : 철새 전문 해설사들이 철새를 가까이서 탐조할 수 있도록 안내
 - 버드 오토캠핑 : 철새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룻밤 나기

• 기타 군산시 일대 : 철새마을 자연체험장, 철새 팔라디오

주최 | 군산시 주관 | 군산세계철새축제 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KIN,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안내 전화 | 063) 453-7213 홈페이지 | http://www.gmbokr

http://mobile.twitter.com/GIMBF NAVER 군산세계철새축제